

동봉 권홍섭 고문 한시집 출간



동봉(東峰) 권홍섭(權洪燮) 고문이 한시집漢詩集 동봉만담東峰漫談을 출간했다. 그 동안 한 편 한편 써 두었던 한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동봉 권홍섭 고문은 고향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 막역지우莫逆之友 문소聞韶 김철훈金徹堧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동봉잡수東峰雜詠와 한시작법漢詩作法 등의 명저를 출간한 한시의 대가”로서 “이렇게 귀한 한시漢詩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동봉東峰의 마음도 고려청자를 재현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도공陶工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한다. 동봉은 자서(自序)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학을 공부할 형편이 못 되어 한시 특유의 묘미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맥대개文脈大概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늦가을 노래하는가 하면 안동권씨로서 권문에 대한 긍지와 100만 죽친들의 숙원이었던 안동권씨 대중회 통합 문제를 하례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대문 소설과 청계천 복구 등 시사적인 문제에 주제 중의 하나이다. 남한산성을 회고할 때는 송과 삼전도 항복비의 수모를 어찌 잊을 수 있는냐며 비분강개하기도 한다.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백사 이항복,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1~1392) 등



역사적인 위인들을 추모하며 그 지조와 빛나는 그 명성 영세토록 우뚝하리라고 읊는다. 또한 권이혁 전 장관이 별세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큰 집안의 동량이 무너졌다고 애도한다. 동봉은 호주제가 폐지되자 “호적을 없앴은 소인들의 허물 “이라고 질책하며 “세상이 쇠해지고 도덕이 사라”져 “책상머리에 붓을 던지고 망연히 탄식”한다.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과 광복 70주년을 회고하며 어두운 연기 걷어낸 선열들의 희생을 감격해한다. 그뿐 아니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라고 했듯이 국론분열을 한탄하는 등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憂國)의 시도 보인다. 이외에도 짐승 같은 행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한시로 그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중 몇 수만 소개한다. 편집국장 권형완

嘆戶主制廢止 호주제 폐지를 탄식함

世衰道沒異端衰 세상이 쇠해지고 도덕이 무너지자 이단이 모여들어
天下橫行莫大愁 천하를 휘젓고 다니니 더 클 수 없는 근심일세
獎勵良風君子德 좋은 풍속 장려함은 군자의 덕목이요
刪除戶籍小人說 호적을 없앴은 소인들의 허물일세
喪倫過度千秋辱 인륜 일음이 정도에 지나치면 천후의 욕이 되고
賤俗爭先萬代羞 천박한 풍속이 앞을 다투면 만대의 수치일세
到此儒林悲感劇 이 지경에 이르니 선비들 슬픈 감회 심해져서
牀頭投筆惘然吁 책상머리에 붓을 던지고 망연히 탄식하네

恭賀安東權氏兩大宗會統合 안동권씨 양대 종회 통합을 하례함

積歲吾門宿願成 여러 해 쌓아온 우리 문중의 숙원을 이루었으니
京鄕姓氏總歡聲 전국 의 일가붙이 모두 다 환영일세
根深葉茂天恩重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니 하늘 은혜 중후하고
源遠流長地驗亨 근원이 멀면 흐름이 기나니 땅의 효험 형통하네
世世垂勳人已仰 대대로 공훈 세워 세인들이 우러렀고
家家種德國將明 집집마다 덕을 심어 나라 장차 밝아지네
從今以後先和合 지금 이후로는 화합을 먼저하여
百萬宗員一致榮 백만 종원이 일치하여 번영하세

권완규 축구선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준우승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이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권완규(추밀공파, 39세) 선수는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수비수로서 큰 활약을 했다. 권완규 선수는 과천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다.

대구종친회 사무실 입주 현판식 거행

안동권씨 대구종친회(회장 권오섭)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보금자리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사무국 입주 현판식은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권오섭 대구종친회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종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동대구로 577 이안센트럴D, 상가 303동 201호에서 거행되었다. 권오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친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니 마음이 뿌듯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종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종친 간에 서로 단합하고 서로 돕고 다같이 화합했으면 좋겠다. 오늘 입주식이 바로 그런 징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사무실이 대구종친회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축사에서 “대구종친회의 저력이 대단하다. 권오섭 회장님을 중심으로 종친 간에 하나가 되어 서로 위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여 대구종



권오섭회장(왼쪽), 권영진시장(가운데)

친회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도 더욱 잘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조정신을 바탕으로 더 배려하고 더 발전하는 대구종친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권상주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고유제 모습



새로운 사무실에서 대구종친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회원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중동(權重東, 안동권씨 대중회 고문) 전 노동부장관이 11월 26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권 전 장관은 안동고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아시아노동대학교(ATUC) 노동대학원 사회과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전국체신노조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교육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9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1976~1979)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노동청장을 거쳐 초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1985년에는 제12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에 당선되었다.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ILO협회장, 한국노동문화협회 회장을 맡았다. 송조정신이 남달라 대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애항심이 두터워 재경 안동향우회를 발족시켜 서울에 안동인들의 동지를 마련한 바 있다. 고향인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선영에 영면했다. 유족은 권경, 권선(선동물병원장), 권명, 권정, 권진(에르메스 디자이너) 씨 등 5녀와 사위 목상호(미국 공인회계사), 이윤직(청CG 아카데미 원장), 김종명(한화테크윈 부장), 반기용(그래픽디자이너) 씨 등이 있다.

동정

▲권영수 (주)LG 부회장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되었다. 권 부회장은 11월1일자 LG에너지 솔루션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권 부회장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CFO(최고재무책임자)와 CEO(최고경영자)를 거치며 다수의 대규모 글로벌 사업장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높고 고객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권철현 세명전기공업 대표이사 가 11월 2일 ‘제 4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개인 유공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 대표는 열악한 기술 수준을 극복하고 특고압 송전금구류를 개발해 국내외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TX 고속전철화 사업으로 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대표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환경 증진과 지역 인력 고용 창출, 장학사업 운영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권순익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 치기공학과 교수가 11월 올해 보건 의료기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2009년부터 강원도 일원에서 중·고교생, 장애인, 저소득층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및 틀니세척, 치과기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권순익 교수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강원회 부회장이다.

▲권순용(權舜容, 추밀공파, 38세)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이 지난 1월 서울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장으로 취임했다. 권

소장은 1963년 경기도 화성시 반봉, 반어의 집안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1988년 경찰에 입문했다. 내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귀향을 준비하며 2400여평을 매입하여 첫 수확으로 추수한 백미 한 가마니를 2021년 추향제에 헌성했다. 권 소장은 평소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송조정신과 애족심이 남달라 청장년회에서 안동권문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2015년에는 추향제 봉행 정상화를 위해 분투하며 200만원을 헌성하기도 했다. 슬하에는 1남 3녀를 두고 있다.

▲권상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연구소장이 한국자동차공학회 제35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700여개의 기업, 연구소, 도서관 등 법인 및 단체회원

과 3만 8000명의 개인회원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 관련 국내 최대 학회다. 권 신임회장은 1994년 삼성자동차로 경력 입사한 뒤 SM3 등 자동차 개발의 총괄 엔지니어를 역임하는 등 르노삼성자동차의 제품 개발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15년 르노그룹 최초의 한국인 연구소장으로 발탁되었고, 2016년부터는 르노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제3대 권택조 단양군체육회장이 취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의 새로운 방역 지침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가진 첫 공식행사이다. 권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대에 걸맞은 체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석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 치기공학과 교수가 11월 올해 보건 의료기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2009년부터 강원도 일원에서 중·고교생, 장애인, 저소득층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및 틀니세척, 치과기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권순석 교수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강원회 부회장이다.

▲권원택 케이씨텍 사장이 국산 반도체 장비 개발과 생산으로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 사장은 국내 유일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국산화 성공으로 국산 장비 보급에 기여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감광제(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을 국내 기업과 기술 협력 및 개발 방향 제시로 약 30%의 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해 기술 자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반도체 관련 특허 26건을 출원한 바 있다.

안동권씨 대중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중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중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교통 편리합니다)

◎ 연 락 처 : 안동권씨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1천만원	70만원
원룸 3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1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2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3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4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3백만원	50만원

안동권씨 대중회